

제 96호 동기 부여하기 4: "학습에 대한 자체 평가서"

지난 호에는 학생들의 학습유형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유형에 따라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유형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학생을 한번 쳐 보고도 단박에 그 학생의 학습유형을 꿰 찢어 보시는 교수님이 계십니까.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오랜 기간 대하다 보면 학생들의 학습능력 과 학습태도를 얼굴만 보고도 대충 알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학생 스스로 자신을 파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이 "너는 이렇다 저렇다"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태도를 점검하게 하는 "학습에 대한 자체 평가서"를 소개합니다. 저는 학습동기가 유별히 적은 학생이 보이면 그들과 개별적으로 5분씩 면담을 하는데 그때 이 평가서를 사용합니다.

학습에 대한 자체 평가서

1. 강의 참여

강의를 빠지지 않는다. A B C D F

강의실의 앞부분이나 가운데에 앉는다. A B C D F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한다. A B C D F

질문을 하거나 질문에 대답을 한다 A B C D F

2. 학습 습관

예습을 한다. A B C D F

복습을 한다. A B C D F

숙제를 제때에 한다. A B C D F

강의 한 시간당 2시간 정도 공부한다. A B C D F

3. 도움 받기

나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 A B C D F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청한다. A B C D F

교수나 조교를 방문한다. A B C D F

4. 관리 사항

잠을 충분히 잔다. A B C D F

하루 세끼 정기적으로 먹는다 A B C D F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A B C D F

운동을 정기적으로 한다. A B C D F

위에 나열된 항목들이 왜 중요한가는 다음 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벽, 2000